

“비정규직 차별 철폐” 乙의 외침 뜨겁다

학비노조 내일까지 총파업...광주·전남 학교 급식 차질 우려 조선대 비정규직 교수 파업...국교련 대학개혁평가 중단 요구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을’의 목소리가 북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급식조리원,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대학 비정규직 교수 등 숨죽이고 있던 노동계가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파업...“도시락 싸세요”=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소속 급식조리원, 영양사, 조리사 등은 29일부터 이틀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에서도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유·초·중·고교측은 대책 매뉴얼을 마련, 불편을 최소화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 학비노조에만 2867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327개교 중 114개교가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비상급식 대책을 마련해 운영기로 했다. 당장, 각화초 등 초등 45곳, 금구중 등 중등 10곳, 문정여고·운남고·전남고 등 5개 고교 등 61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가정통신문이 발송됐다. 점심·저녁 급식이 이뤄지던 공립고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학교시킬 계획이다.

블로초 등 4개 초교도 단축수업을 진행해 일찍 하교하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도 비슷한 758개 초·중·고교 중 117개(29일)~241개교(30일)가 정상급식 대신,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우유 등 대체 음식 제공, 단축수업,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비상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들 뿐 아니라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교육 행정·특수아동 돌봄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에는 전남 730개 초·중·고교 및 23개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급식조리원 2337명여명, 조리사 568명, 영양사 293명, 특수교육실무사 243명, 돌봄전담사 601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 예정이다.

◇비정규직 교수들도...“차별 철폐”=조선대 비정규직 교수들도 지난 27일부터 정규직 교수들과의 차별 철폐 등을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는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 교수를 차별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 중단 및 강사로, 교육

컨텐츠 개발비 인상 등을 내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교수들의 파업 시기가 학생들의 성적 열람·정정 기간(27~30일)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도 터져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학정책, 중단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28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와 공동으로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 교육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부실한 교육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대학사회의 혼란을 잠재워달라는 게 이들 요구사항이다.

국교련 등은 앞서 “국립대학법 제정을 비롯해 교육부 정책실패를 철저히 조사, 합리적으로 기능을 조절하고 불합리한 대학의 재정지원방식을 교정할 것”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공사현장 장마 대비 28일 광주 북구 용두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북구청 공동주택과 직원과 작업자들이 장마철에 대비, 경사면으로 흙과 모래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을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유학기제 확대 등 개혁 가속...사학 투명성 높일 것”

자사고 일반고 검토·교교 학점제 도입...5·18 전국화 추진도

장휘국 교육감 직선 2기 3년

취임 3주년을 맞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지난 재임 기간은 ‘현 정부와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요 교육 현안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끊임없이 맞섰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 교육감은 28일 열린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이라며 “직선 1·2기 지난 7년간 광주교육이 펼친 정책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대립이나 불편한 갈등 관계가 사라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더디게 진행되던 인상을 받았던 개혁 정책의 가속화도 예고되고 있다. 현 중학교 1학년 2학기만 시행중인 자유학기제의 단계적 확대, 자사고(송원고)의 일반고 검토, 고교 학점제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미 광주시교육청은 49개 일반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기 위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사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향후 진행 여부도 관심사다. 5·18 전국화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5·18 현장체험 학습코스를 개발하고 전국 교사들을 광주로 불러 연수를 실시하면서 전국 학생들이 5·18 민주정신에 담긴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해질 19:51 달뜨기 10:46 달지기 23:48

흐린 하늘-후텁지근
흐리고 밤부터 남서해안에 비가 오겠다. 예상강수량 5~20mm.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22/31	보성	가름흐리고비	19/27
목포	가름흐리고비	22/28	순천	흐림	21/28
여수	가름흐리고비	21/27	영광	흐림	21/29
나주	흐림	20/30	진도	가름흐리고비	21/29
완도	가름흐리고비	21/27	전주	구름많음	22/30
구례	흐림	19/30	군산	구름많음	21/29
강진	가름흐리고비	21/28	남원	구름많음	20/30
해남	가름흐리고비	21/29	홍산도	가름흐리고비	20/26
장성	흐림	20/28			

◇비다 날씨

지역	시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동	0.5	동	0.5
	남부	동	0.5~1.0	동	0.5~1.5
남해	남해	동	0.5	동	0.5
	서부	북동	0.5~1.5	동	0.5~1.5
◇물때	목포	간조	11:15	만조	06:09
			23:22		18:19
여수	간조	06:45	만조	00:41	
		18:55		13:00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높음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날짜	30(금)	7/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날씨	☔	☔	☔	☔	☔	☔	☔
온도	20/25	23/30	23/30	23/30	23/30	24/31	24/31

가뭇 해갈될까...내일부터 장맛비

광주·전남지역은 흐리다가 30일부터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9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는 남서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강수량은 5~20mm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도~22도, 낮 최고기온은 27도~31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오기 전까지 내륙

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30일에는 남해안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장맛비는 2일까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4도~28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과 30일 모든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세월호 화물칸 수색 임박...진입로 장애물 제거

세월호 화물칸 본격 수색을 앞두고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트윈데크(Twin Deck)의 차량을 제거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28일 세월호 C데크 우현(하방 방향)에서 내부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 7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화물칸인 C데크는 복층 구조로 트윈데크라고도 불린다. 수습본부는 세월호 우현에서 트윈데크 진입을 가로막듯 놓여있는 하얀색 K5 차량 등 모두 7대의 차량을 줄을 매달아 크레인을 통해 위쪽으로 빼냈다. 차량 제거 작업에는 선제조사위원회가 참관해 감독했다. 화물칸에서 빼낸 차량들은 세월호 거치장소인 목포 신항 내 임시 아적장에 보

관한다. 또 1차 수색을 마친 44개 객실 구역에 대한 점검수색과 정리작업을 이어갔다.

전날 수습본부는 세월호 선수·우현·선미에 천공과 진입로 확장 등을 통해 화물칸에 접근, 크레인에 내부 차량 등 화물을 꺼내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 공간에는 소방시설과 화재예방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작업 전에는 물과 포소화약제를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세월호 화물칸 정리작업은 선미 부분은 1일 이후, 선수·중앙 부분은 4~7일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영기자 young@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

신선들이 즐기던 곳 선유도

신비로운 섬에 가고 싶다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즐기던 곳이라하여 선유도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에서의 달콤한 휴식

7월 6일, 선유도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군산시 GUNSAN CITY ● 관광문의 (063)454-3337 / ● 홈페이지 http://tour.gunsan.go.kr

●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기간 : **2017. 7. 1. ~ 8. 15.**